반발만 키운 '옥시 면피용 사과'

롯데마트·홈플러스 제시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한국법인 검찰 수사 무마 차원 마무리 속셈 지적

옥시레킷벤키저가 2일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한국법인과 이타 사프달 대표를 통해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오히려 피해자들 및 여론의 반발만 키웠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서 사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영국 본사 차원의 피해보상 대책은 없이 앞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이 내놓은 안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옥시측도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한 면피용 사과라는 지적과 함께 옥시의 한국법인 문제로 한정,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내 피해자수는 사망자 94명 등 총 221명에 달한다. 이중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사망자 70명 등 177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부터 옥시싱싱 뉴가습기살균제 등 관련 옥시 임직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 수사가 영국 본사로의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제품이 판매될 당시 외국인 대표 사시 헤커라와라, 게라트 제인 등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옥시 측에서는 지난달 21일 사전을 통해 사과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장 이타 사프달 대표가 전격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옥시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공식사과를 한 것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사프달 대표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옥시 제품을 사용한 뒤 1등급과 2등급 판에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인 피해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옥시는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조속하고 공정한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패널을 오는 7월까지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차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 자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에 보상 계획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최종안은 피해자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러 회사의 제품을 함께 사용하다 피해를 입으신 다수의 소비자들도 공평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기를 희망하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이들을 위해 다른 제조·판매사들이 보상에 동참해주기를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프달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 옥시를 향한 여론의 차갑한 반응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사과가 검찰의 수사 분위기, 정치권에서의 특별법 제정, 옥시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출속 결정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도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용주 기자

오늘은 오리데이 2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오리데이(5월 2일) 소비촉진 캠페인에서 김태호(왼쪽 두 번째) 농협축산물대표는 비롯한 참석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오리고기를 만든 요리를 나눠주고 있다.

전북중기청,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 22개교 지정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길타)은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 22개교를 지정했다.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은 지난 2002년 처음 시작해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참여하는 22개교는 도전비즈쿨과 도약비즈쿨로 구분했다.

도전비즈쿨은 전주충북초등학교 등 8개교(초등 4, 중등 3, 고등 2), 도약비즈쿨은 남원제일고등학교 등 13개교(초등 1, 고등 12) 등이다.

도전비즈쿨 500만원, 도약비즈쿨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교육은 전북중기청 자체적으로 교수, CEO, 경영지도사 등 창업전문가로 구성된 재능기부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비즈쿨 운영학교에 대해 특강 및 멘토 활동 등을 지원한다.

/신광영 기자

전북銀, JB카드 무이자할부 제공

5-8일 캐시백 더블 찬스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의 연휴간 JB카드 고객들에게 무이자할부와 환급연휴 더블찬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5월 한 달 동안 JB에코신용카드를 해당업종(놀이공원, 음식점,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2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는 홈페이지 응모고객에 한해 1만원 캐시백, Lucky 7 days(5월 5, 6, 7, 8, 14, 15, 21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스승의날, 부부의날)에는 해당업종(음식점,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은라인, 놀이공원)에서 20만원 이상 사용시 5천원, 40만원이상 사용시 1만원, 60만원 이상 사용시 2만원의 캐시백 더블 찬스가 주어진다.

또한 이벤트 응모고객 중 JB에코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하여 100만원 이상 사용고객 1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가족여행권, 50만원 이상사용고객 5명에게 5만원권 기프트카드, 30만원 이상 사용자 50명에게는 1만원 캐시백의 행운까지 준다.

환급연휴를 이용한 가족나들이를 위하여 도내 다양한 시설에서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이루어진다. 변산 대명 아쿠아월드에서 주중 50% 주말 40% 할인, 군산 데이데이 박물관에서 30%할인, 진안홍삼스파에서는 10% 할인이 적용된다.

그리고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3개월(조세업종 제외)까지 무이자할부, 주요 10개(여행, 항공, 백화점, 은라인, 대형할인마트, 가전, 자동차, 병원, 약국, 면세점)업종에서는 6개월까지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

/정명수 기자

건설업 체감경기 침체 여전
4·13 총선 영향 거의 없어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4·13총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4월 건설기업 체감경기(CBSI)는 86.6으로 전월보다 소폭(4.2p) 상승하는데 그쳤다.

통상 상수기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과거처럼 총선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7대 총선의 치러진 2004년 4월에는 건설경기 상승폭이 맞물려 30.9p상승한 바 있다.

CBSI는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다. 여전히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설기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CBSI가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반공사 수주 지수는 81.0으로 전월보다 감소했다. 총선을 앞두고 공공수주 발주 물량은 증가했지만 총선 이후 공공물량이 다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업체별로는 중소업체에서 체감경기가 개선됐다.

중소업체 CBSI는 70.8로 전월대비 13.4p 상승했다. 반면 대형업체는 전월과 같은 100, 중견업체는 전월대비 소폭(0.5p)상승한 83.8에 그쳤다.

5월 CBSI 전망치는 전월보다 0.9p높은 86.5다. /이성주 기자

도내 2개 화장품업체, 서울국제화장품 미용박람회 참가

인지도 향상 기대

도내 화장품 미용업체인 ㈜유셀, 지본코스메틱(주)은 지난달 28~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서울국제화장품 미용산업박람회'에 참가했다.

전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서울 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는 화장품과 미용용품 등 뷰티업종과 오한 전통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박람회이다.

㈜유셀은 피부를 위한 마스크와 패치를, 지본코스메틱(주)는 샴푸와 트리트먼트 품목을 전시했다.

이들 업체는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지역 자생식물을 활용한 화장품 인지도 향상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중국, 미국 등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을 통한 수출 상담과 70여건을 갖는 등 해외 수출 토대를 마련했다.

전북테크노파크 박두득 원장은 "화장품산업의 시장 창출과 글로벌 신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자생식물을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화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도내 화장품 미용업체인 ㈜유셀, 지본코스메틱(주)은 지난달 28~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서울국제화장품 미용산업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란 언론 "바대통령 방문기간 200억달러 규모 협약체결 예정"

이란 언론이 바란해 대통령의 자국 방문 기간(1~3일)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약 200억 달러(약 22조원)의 규모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일(현지시간) 이란 언론 '뉴해란 타임스', 석유부 산하 언론사인 '샤나 (Shana) 등은 양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샤나통신에 따르면 이날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판 전기차 이란 석유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박 대통령 방문 기간 양국은 20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또 한국은 이란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여러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기윤 장관은 "이란 정부는 한국이 액화천연가스(LNG) 공동 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유전 개발, 정유공장 건설 등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란은 공동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이 등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작년 엔지니어링 수주 전년대비 14.6% 감소

지난해 엔지니어링업계는 국내 건설수주 호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가 큰폭 감소함에서 전년 대비 1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엔지니어링업계 수주실적은 6.51108억원으로 전년(7.61562억)대비 14.6%감소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감소율(9%)의 2배에 달한다.

해외 수주가 큰 폭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수주액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5.37284억, 해외 수주액은 67.9% 감소한 4.324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권역별 수주액은 ▲아시아·태평양 6229억(67%↓) ▲중동 688억원(80.7%↓) ▲남미 429억(62.2%↓) ▲유럽 360억(94.2%↓) ▲북미 340억(71.8%↓) 순이다.

국내에서는 건설부문은 호조를 보인 반면 기계와 산업, 원자력 등 비건설부문 수주가 위축됐다.

도로와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10.2% 증가한 3.3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비건설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34.8% 하락한 2.25000억원을 수주했다. /이성주 기자